

“지역 내 공공 물량의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위해 열과 성 다할 것”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는 지난 4월 말 이권수 고운건설(주) 대표를 만장일치로 제11대 광주광역시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회 전국 시·도 중에서도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공공사 물량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역 내 중·대형 업체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권수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곧바로 임원들이 참여하는 공사 물량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대외 협력 강화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당면 과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역 업체 참여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회원사들의 수주 물량을 늘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분주하게 뛰고 있다. 광주 지역 건설업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회장 봉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권수 회장을 지난달 19일 만나 지역 건설업의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이권수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신임 회장

먼저,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셔서 감회와 각오 또한 남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많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종간 업역 갈등이 심화되고 하도급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등 건설산업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려운 때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것은 회원사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유관기관 등을 직접 발로 뛰어나다며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사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겨 봉사하는 자세로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제일 극심한 수주 기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시의 수주 물량이 감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17개 시·도 중 광주시의 건설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는 경제활동인구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9.5%(7만 1,00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는데, 이는 경남(5.0%), 경북(6.4%)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반면에, 금년 상반기까지 건설 수주액은 2,623억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8,203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3조 4,071억원)이나 인천(3조

6,340억원), 울산(2조 5,264억원), 대구(2조 139억원)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주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공공사 물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물량난과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의 수주 물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공공공사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른 지역 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하여 중·대형 지역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건설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건설업을 이끌어온 금호산업과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 중·대형 업체들이 일감을 찾아 본사를 전남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삼능건설과 남광건설 등 공공공사 수주를 주력으로 하는 회원사들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광주시의 재정 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2016년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을 위한 예산 절감 노력 등이 수주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 발주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건설경기 활성화 요구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입니다. 이에 저는 취임 후 광주시와 도시공

사 등 지역의 주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공공 물량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SOC 투자 확대를 위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 정·관계에 관련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1조 9,00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 업체가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와 49% 이상 지역외부 공동도급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소방공사의 분리 발주 등 종합건설업의 업역을 침해하는 건설 관련 법령 개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기업의 공장이나 학교시설 공사와 같은 민간 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 문제 또한 건설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공사 물량 확대와 함께 적정공사비 확보가 건설업계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인 실적공사비제도가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시장 가격이 표준시장단가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 비용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예산 절감 위주로 운영돼 온 계약심사제도도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설계시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마이너스(-) 예가 작성 등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을 시정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핵심적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 효율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협회 임원 23명이 참여하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우선, 공사물량확대 분과위원회에서는 주요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를 수집하여 신기술·특허 공법 등 스펙을 지정하고,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업역을 위반한 발주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관계 기관에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정공사비확보 분과위원회에서는 공사비 삭감이나 공기 연장시 간접비 미지급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 심사시 공사비 삭감 관행 시정과 더불어 공사 발주 전 설계 용역업체에 적정설계와 적정공사비 적용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강화 분과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등 발주기관의 주요 회의나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및 여론 선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중 적정공사비확보 분과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회원사들이 제값을 받고 성실 시공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발주자와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업체들의 물량 확보나 수익성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낙찰제도의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공사비를 보장하고 지역 업체 40% 이상 의무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 업체의 공사 물량 확대와 수익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영세한 상황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항목에 업체 규모와 기존 낙찰 금액 등이 높은 배점을 차지할 경우 여전히 대형 건설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영세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보호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운건설은 설립 이후 30여 년 동안 '무차입 경영'을 모토로 '책임 경영'과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1989년 고운주택을 설립하여 주택 건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은 투자액이 거액이고 이익도 많은 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건설업이 호황이던 시절에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관련 하도급업체와 입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사례들을 몸소 지켜보고 난 뒤 저는 '잘못된 판단과 과욕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신념이자 원

칙으로 삼았고, 지금까지 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내실과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집을 짓는 사람도, 집에 입주하는 사람도, 협력사들도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여 책임 경영과 상생 협력을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년 동안 라이온스클럽에서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사랑연합회 부회장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계 차원에서 건설업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업계 스스로 근절하는 자정 노력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 나눔 경영을 확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매월 1만~5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 · 사진 : 이형우 편집장, 인홍진 연구원